

스페인 플라멩코발레단, 예올마루서 한국 초연

개관 이래 첫 해외발레단...‘아파나도르(Afanador)’ 공연
사진과 무용 경계 넘나드는 현대 플라멩코의 새 시도

GS칼텍스 예올마루가 24·25일 세계적인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의 내한 공연 ‘아파나도르(Afanador)’를 선보인다.

16일 예올마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초연된 ‘아파나도르’는 팔롬비아 출신 세계적인 패션 포토그래퍼 루벤 아파나도르(Ruven Afanador)의 흑백 플라멩코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해당 작품의 국내 초연이자, 예올마루에서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해외 발레단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그동안 국립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 국내 주요 발레단의 공연은

예올마루 무대에서 꾸준히 소개돼 왔으나 해외 발레단의 공식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나도르’는 전통 플라멩코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독창적인 예술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예올마루 관객에게는 일생일대의 새로운 무용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은 1978년 창단된 스페인의 대표 무용단으로 클래식 발레부터 플라멩코, 민속 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전통 작품을 충실히 재현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해석과 혁신적인 안



무를 통해 스페인 무용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무용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출을 맡은 마르코스 모라우는 유럽 현대무용계의 거장이자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무용 안무가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안무 스타일로 국제적 찬사를 받고 있다.

공연에서는 예술 장르 간 경계를 과감히 넘나들며, 정적인 사진 속 순간들을 역동적인 무용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무대 전체를 관통하는 블랙&화이트 미학은 플라멩코 특유의 강렬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내며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 호 기자

‘자연 속 과학’ 광주과학관 사이언스 봄축제 ‘작은 생명과 그린 지구’ 주제...18일~20일

곤충의 생애주기 등 자연을 통해 과학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광주에 펼쳐진다.

국립광주과학관은 18일부터 20일까지 과학관 곳곳에서 ‘2025 사이언스 봄축제’가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작은 생명과 그린(Green) 지구’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생물 전시, 환경 만들기 체험, 반려 가족 이벤트, 공연 등 20여 종의 다채로운 과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동물·곤충 전시체험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 & 생물 만들기 체험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 가족 운동회, 과학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동물·곤충 전시체험은 장수풍뎡이, 개구리, 도마뱀, 토끼, 헬스터, 기니피그, 앵무새 등 곤충, 파충류, 조

류, 포유류 동물을 만날 수 있다.

또 애벌레, 장수풍뎡이 등 곤충의 생애주기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앵무새와 대화하며 먹이 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다.

환경 & 생물 만들기 체험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버려지는 물건을 이용해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멸종위기 동물 포토존과 지구환경 미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이 공 가져오기, 장애물 넘기, 기다려 경기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전문 공연팀의 야외 공연, 환경을 생각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지구환경 특공대 뮤지컬, 로봇 강아지와 함께하는 과학관 산책 등의 이벤트도 펼쳐진다.

/조선주 기자

담양문화재단 ‘어쿠스틱 인 해동’ 공연

내일 해동문화예술촌...국내 첫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츠와 함께

〈제〉담양문화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에서 ‘어쿠스틱 인 해동’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쿠스틱 인 해동은 24년부터 진

행한 지역 거점공간 활성화 공연 프로그램의 연속사업으로, 지역 공연 예술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거점 공간(해동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을 무대로 콘텐츠를 기획했다.

공연팀 솔리스츠(The Solists)는 국내 불모의 장르였던 ‘아카펠라’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룹으로 올해로 데뷔 33주년을 맞았다.

클래식을 바탕으로 국악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로 많은 아카펠라 마니아에게 오랜 시간 사

랑받아왔다.

이번 공연은 ‘햇노래’와 ‘아리랑 연곡’ 등의 국내 가곡과, ‘Hello Mr. Mozart’, ‘Obladi-Oblada’를 포함한 외국곡 등을 준비했다.

공연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네이버폼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강성국 기자

토요일 오후엔 가족과 ‘상상의 동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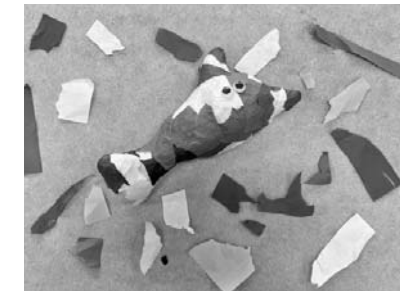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상상의 동물나라’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오는 7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가족 프로그램 ‘상상의 동물나라’를 운영한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미술 체험 활동은, 신문지·석고붕대·한지를 활용해 상상 속 동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창작의 장.

참여 가족은 상상력을 발휘해 동물 모양을 떠올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기르고,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 4~5인의 가족이 선착순 사전예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예약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이우환, 사갈, 마리로랑생, 달리 등 세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하정웅컬렉션 전, 국내·외의 저명작가와 지역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들이 미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관람객 참여형 아트놀이터를 포함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기고

‘구명조끼 착용’ 가족 행복 지키는 또하나의 약속



정 정 욱

/완도해양경찰서 당끝파출소 경위

해양 여행은 많은 이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준다.

특히, 완도와 같은 아름다운 해양 관광지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바다위의 시간들은 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

그러나 바다는 밀물처럼 아픔과 슬픔을 몰고 오기도, 찰떡처럼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순식간에 발생한다. 단 한번의 방심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럴 때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이다.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체온 저하와 익사를 방지 해주며,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생명 장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반거롭다는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바다 위에서는 그 작은 불편함이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구명조끼는 단순히 착용만 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본인의 체형과 체중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하단에 있는 고정용 끈이나 버클을 채워야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몸에서 벗겨지지 않고 착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는 선내가 아닌 선외, 즉 갑판과 같은 개방된 공간으로 나온 뒤 착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박 구조상 선내는 이

동 공간이 협소하고, 사고 발생 시 혼란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속한 탈출과 안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선박이 갑작스럽게 전복되거나 큰 파공으로 해수가 빠르게 선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부력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물속 잠수가 어렵게 되어 오히려 선체 내 탈출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명조끼는 사전에 손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두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선외로 나와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명조끼 착용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또 하나의 약속이다.

바다를 찾는 모든 이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해주신다면 해양에서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바다, 행복한 여행을 위해 완도해양경찰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 기사제보 · 독자견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homa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존.....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능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문.....525-88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레...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합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